



## 유럽 은행, 내년 6월까지 1,147억 유로 자본 확충해야

김혜란 연구원

- EBA(유럽은행감독청)의 유럽 대형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자산 건전성 심사) 결과 1,147억 유로(원화로 174조 원, 우리나라 GDP 7분의 1수준)의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신흥시장에서 공격적인 자산회수와 자산매각, 증자, 출자 전환과 같은 다양한 자본 확보 수단 활용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시행했던 스트레스 결과(1,064억 유로 자본 부족)보다 자산 건전성이 나빠졌음.
  -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의 경우 재정 불량국 채권 등을 충분히 포함한 9월 말 자료를 기준으로 모든 은행이 자체 운영 투자자산에 바젤위원회의 권고방식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함에 따라 자본 부족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71개 은행 중 30개의 유럽은행은 은행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1월 20일까지 자본 확충 계획안을 EBA에 제출해야 하며, 내년 6월까지 1,147억 유로의 자본을 확충하여 자기 자본비율(tier 1)을 9%로 맞추어야 함.
- 국가별로 그리스(300억 유로), 스페인(262억 유로), 이탈리아(154억 유로), 독일(131억 유로), 프랑스(73억 유로) 순으로 자본 부족 규모가 큼.
  - 예상과 달리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영향이 적었던 독일 은행권의 자본 확충 규모가 10월 예상치(52억 유로)의 2.5배를 상회하였으며, 독일 2대 상업은행인 코메르츠뱅크는 6주 만에 자본부족액이 29억 유로에서 53억 유로로 급증하여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국영화가 전망됨.
  -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디트는 자본부족액을 채우기 위해 이미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75억 유로 증자를 발표한 상태이며, 스페인의 산탄데르은행도 153억 유로의 자본부족으로 남아메리카에 보유중인 핵심자산 매각에 나섬.

〈표 1〉 각 국 은행의 자본부족액

(단위: 억 유로)

구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합계	300	262	154	131
은행	NBG (66) EFG (44) 피레우스 (37)	산탄데르 (153) 발바오비스카야 (63)	유니크레디트 (80) Banca Monti del Paschi (33) 방카포플라레 (27)	코메르츠뱅크(53) 도이체뱅크(32) Hypo Real Estate (24)

■ EBA의 자본 확충 계획은 유로존 채무위기로 손실을 본 유럽 금융권이 시장 신뢰를 회복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나 이에 따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임.

-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9%까지 올려놓아야 뱅크런을 피할 수 있고, 자본 부족시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져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자본 확충은 생존차원에서 꼭 필요함.
- 그러나 은행들의 디레버리징과 대출 감소 가능성이 높아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스스로 9%룰에 맞추지 못하는 은행들은 구제금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각국 납세자의 우려감을 키우고 있음.

(Financial Times, Wall Street 12/8)